



이원욱 의원
“전면적 개혁·쇄신 필수”
04



Life

줄어드는 맥주시장
업계, 소주·와인 주력
1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고삐 조인다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 단계적 시행 제로에너지건축물 도입 범위 확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 도입 등



서울시 소유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서울시

서울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 온실가스 관리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건물온실가스 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서울시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시는 신축 건물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온실가스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고, 서울시 건물에너지 사용량의 25%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316개 업체)과 서울시 및 자치구 소유 건물(6728개소)을 대상으로 한 선도적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도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시는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물은 전체 건물 1.9%(약 1만1000동)에 불과하나 건물부문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8.7%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 이전 건물의 단열 성능은 2017년 이후 지어진 건물의 20% 수준에 불과해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건물이 8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의무화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 도입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도입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사업면적 9만~30만㎡ 정비사업, 연면적 10만㎡ 이상인 초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ZEB 5등급(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지킴이 20% 이상)을 의무화한데 이어 내년에는 비주거는 연면적 10만㎡~3000㎡ 이상, 주거는 1000세대~30세대 이상인 중·대형건물의 설계를 ZEB 수준(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으로 강화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를 도입한다.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과 3000㎡ 이상 상업

건물을 포함 약 1만2700동을 대상으로 건물 현황과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등을 신고·공개하는 내용이다.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건물 유형별 표준 배출량을 설정해 건물별로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2050년까지 12개 유형별 표준배출기준 대비 87%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전체 건물온실가스 배출량 3000만톤의 약 26%인 779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올해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건물 1400개소와 내년 공공기관 1600곳, 2025년 1만㎡ 이상 민간건물 4000개소, 2026년 3000㎡ 이상 민간건물 5700곳으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적용 범위를 차츰 넓혀나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지하철 노선도, 40년 만에 '새단장'

위치 알기 어려운 노선도 형태 개선
8선형 도입, 2호선은 노선도 중심에

서울시는 40년 만에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을 바꾼다고 13일 밝혔다.

지하철 노선은 1980년대 4개 노선(106개 역)에서 2000년대 9개 노선(338개 역)을 거쳐 현재 23개 노선(624개 역)으로 증가했다.

시는 "노선도가 1980년대의 형태를 유지한 채 다양한 형태로 혼용돼 추가 확장 노선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디자인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위치를 알기 어려운 노선도 형태, 일반역과 잘 구분되지 않는 환승역 표기, 공항·강·바다 등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인지 부족, 구분이 어려운 노선 표현을 현 디자인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두가 읽기 쉬운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이하 개선 노선도)을 마련했다. 개선 노선도에는 ▲많은 노선과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8선형 도입 ▲시인성 개선을 위한 신호등 방식의 환승역 표기 ▲위치 이해도를 높이는 지리 정보 표시 ▲노선 간 구분이 쉬운 색상과 패턴이 적용됐다.

우선 시는 국제 표준인 8선형(수평·수직·45° 등 대각선과 직선만 허용해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도식화 지도의 표준)을 도입하고 원형 형태인 2호선 순환선을 노선도 중심에 두기로 했다. 지리적 정보를 고려한 노선 적용을 통해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환승역 표기 방식은 신호등 형태로 바꾼다. 사용자가 쉽게 목적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환승되는 노선의 색상을 나열하고 연결 고리 형식으로 표현했다. /김현정 기자

성남시승격 50주년 기념 50가지 행사 마련

9~11월, 시민의 날 행사 등 기념사업

성남시는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시민의 날(10월 8일)을 중심으로 9~11월을 기념사업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 50년, 50가지 빛깔의 가을 성남'을 기치로 내건 시민참여 행사 등 50개 기념사업을 마련했다.

주요 행사 일정은 ▲제50주년 성남 시민의 날 행사(10월 7일~8일 시청 광장) ▲2023 성남 페스티벌(10월 6일~9일 탄천) ▲청소년 창의 과학 축제(9월 23일 시청 광장) ▲성남 50년 기록 전시(9월 26일~10월 9일 시청 로비) ▲드론 라이트 쇼& 매직 페스티벌(10월

5일 탄천, 10월 9일 성남종합운동장) ▲어린이글짓기·그림대회(10월 7일 시청 너른못) ▲성남 시민 체육·문화 대축제(10월 14일 성남종합운동장) ▲시민건강 박람회(10월 15일 운동공원) ▲KBS 열린음악회(10월 17일 분당구청 잔디광장) ▲반려동물 페스티벌(10월 21일 시청 광장) ▲파크콘서트(8월 19일~10월 7일 매주 토요일, 중앙공원) 등이다.

이 중 '제50주년 성남시민의 날 행사'는 오는 10월 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기념식을 한 뒤 7일과 8일 양일간 시청 광장에서 4차산업 체험존, 가족 베틀시장, 시민 참여존 등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교사 1인당 학생 수 많고, 초임 연봉은 '미달'

교육부, OECD 교육지표 분석 급여, 15년차 지나야 평균보다 높아져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67.5% 수준



우리나라 초등·중학교 교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초임 임금도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OECD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3' 분석 결과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2021년 기준)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OECD 교육지표 평균보다 많았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1명이다. 2년 전에 비해 0.5명 줄었지만, OECD 교육지표 평균 14.6보다 2명 이상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중학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3.3명으로 OECD 평균(13.2명)을 웃돌았다.

다만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어 일반계 고등

교는 3620만원으로 10%가량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중·고교는 3352만원으로, OECD 교육지표 평균 중학교 3745만원, 고등학교 3909만원보다 낮았다.

반면 15년 차 교사의 급여는 주요 국가 평균을 상회했다. 한국 초등학교 교사 급여는 5907만원, 중·고교는 5913만원으로 최고 약 20%를 더 받고 있다.

2020년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113달러로 전년과 견줘 2%(294달러) 늘었다. OECD 평균인 1만2647달러보다도 높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 1인당 공교육비는 1만3278달러, 중등은 1만7038달러로 초등 1만658달러, 중등 1만1942달러를 나타낸 OECD 평균보다는 높았다.

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2225달러로 2019년보다 8%(938달러) 증가했음에도 OECD 평균(1만8105달러)의 67.5%에 불과했다. /이현진 기자 lhj@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3 | 해질 / 18:43

9월 14일 (木)
음력 : 7월 30일

수도권 날씨
21~2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8/28, 동두천 19/28, 가평 19/28, 파주 18/27, 서울 21/28, 양평 20/27, 인천 21/28, 수원 21/28, 용인 21/28, 평택 21/27, 백령도 20/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문체부,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학생 선수 육성
▲클린스만호, 사우디 꺾고 '첫 승'...조규성 결승골 /사진 뉴시스

▲황희찬, 사우디전 선발 복귀...김민재 짝은 정승헌
▲올드머니룩 인기로 프리미엄 브랜드 거래액 '역대 최대'



▲문체부, 내년 문화예술 예산 2조 2704억원
▲BTS RM 후원으로 복원한 '활옷' 공개 /사진 뉴시스